

학교·병원 인근 뚝 끊긴 인도…시민 안전 ‘위협’

광주 남구 백양로 사거리…학생·주민 무단횡단아찔 경찰 “시간당 유동인구 충족 못해 횡단보도 미설치”

차도와 생활도로(이면도로)가 인접한 사거리 주변에 인도가 끊긴 데다, 횡단보도마저 없어 학생과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은 교통 혼잡은 물론, 30km 속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기도 해 횡단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백양로 사거리 인근은 수피아여고, 석산고, 광주기독병원, 아파트가 자리한 데다 양립동과 봉선동을 잇는 길목으로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또 생활도로로 차량 이동 시 30km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백양로 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들은 제한속도 30km를 무시한 채 쉿쉿 달렸고, 같은 곳에서 길을 건너려는 이들은 목을 빼고 오른쪽, 왼쪽과 함께 앞, 뒤를 연신 보며 건널 때(?)를 노리고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 양쪽으로 자리잡은 계단길을 오르내리는 어르신들은 평지로 내려와 인도가 없는 것이 익숙한 듯 양쪽에 차가 오는 지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길을 건넜다.

또 차량들이 정제하자 차량들 사이를 아찔하게 가로질러 가는 이들도 보였다.

여기에 백양로 사거리 경사로를 올라 서면 바로 위에 삼거리가 있어 차량들이 급경사로에서 얽혀 경적을 울리



12일 오전 광주 남구 백양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피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일췌였고, 그 사이로 길을 건너는 시민들이 목격됐다.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가족과 백운광장의 산책로를 가기 위해 이

길목을 자주 건너는데, 인도가 끊겨 있고 횡단보도도 없어 어쩔수 없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며 “30km 속도제한이 있어도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원 문제와 더불어 횡단보도 설치에 적합한 유동인구가 충족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포장도로 및 4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간 당 100여명의 유동인구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장소는 평균 시간당 20~30명, 등하교시간 50~60명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인근 200~300m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이동 후 횡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대면수업 늘자 광주 학교폭력 다시 증가세

올해 1-5월 930건 접수…전년비 221건 늘어

시교육청, 관계회복 조정팀 구성 등 예방 활동

광주지역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대면수업 재개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교육진흥원노동조합광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학폭 전담기구 접수 건수는 총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8건 대비 221건(31%) 증가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건수 역시 올해 1-5월 총 277건으로 전년 동기 167건 대비 110건(66%)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해 대비 학폭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올해 대면수업이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대면 수업이 재개된 올해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에만 학폭 접수 건은 2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2건 대비 131건(107%)이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신학기 학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폭 예방·홍보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학폭 대안과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내실

화를 위한 광주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학폭 예방을 위해 30여명의 학폭 관련 전문가들로 ‘관계회복 조정팀’을 구성,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관계회복 조정팀에는 학폭 담당 경찰관(SP0)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폭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회복 조정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 설명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또 기존에 듣기만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형태와 달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이 기자

음주운전 50대 택시기사, 시민 신고로 ‘덜미’

음주운전을 한 50대 택시기사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노대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28km 구간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택시차량 운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따라가

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 노대동 아파트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6%의 면허정지 상태였으며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주성학 기자

‘집단탈주 외국인’ 36시간만에 전원 신병 확보

체포 3명·자수 7명…모두 불법체류자로 출입국사무소 인계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외국인 도박 피의자 집단탈주 사건 발생 36시간 만에 수사 당국이 10명의 신병을 전원 확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 도주범 10명 가운데 1명이 이날 오후 5시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곧이어 2명이 자수했다.

광산구 지역 산업단지 일원에서 잇달아 검거된 2명, 전날부터 경찰과 출입국 당국에 자수한 5명을 포함해 전원 도주 36시간 만에 검거됐다.

도주범 10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도주한 베트남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SNS) 메시지를 활용해 이들에게 자수를 권유

했다.

경찰은 체포됐거나 자수한 도주범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한편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 모여 도박하던 베트남인 23명이 임의동행돼 월곡지구대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중 10명이 오전 6시40분께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cm 정도 열리는 공기순환용 시스템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다. /이옥근 기자

회삿돈 44억 빼돌려 빚값고 도박 50대 징역형

광주지역 유력 건설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고, 도박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여)씨에 대해 횡령죄는 징역 5년, 사기죄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 유예했다.

신씨는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 사주를 설득해 해당 회사의 공동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신씨는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 중 17억여원을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3억7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총 44억8천700만원을 가로챘다.

이와는 별도로 신씨는 “이자를 과하게 받았다고 경찰 신고를 당해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억여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수사단계에서 약 1년 동안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복기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